

금호타이어, “구조조정 칼 빼들었다”

전 직원 대상으로 명예퇴직 실시 ... 노조 대의원대회 열고 강력 반발

금호타이어가 명예퇴직 실시 공고를 내고 정리하고 절차에 본격 착수하는 등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.

금호타이어는 8월11일부터 4일간 일반직과 생산직 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.

신청대상은 근속연수 10년 미만부터 18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위로금으로 최저 5개월 치에서 12개월 치 급여를 지급하는 구체안이 제시됐다.

또 정년이 2년 미만이면 5개월 치를, 8년 이상이면 12개월 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년(57세)을 기준으로 한 방안도 내놓았다.

명예퇴직 인원은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할 계획이지만 이미 경영 정상화를 위해 706명 감원을 공식화한 만큼 신청자가 적으면 나머지는 정리하고 할 계획이다.

노조는 회사의 명예퇴직 공고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며 전면전을 준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.

노조는 8월11일 대의원 90여명이 참여하는 대의원대회를 열고 앞으로의 파업 수위 등 구체적인 투쟁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.

한편, 노조는 7월 및 임금협상 결렬 등에 따라 시한부 전면파업을 벌인 후 8월6일부터 50% 감산 투쟁을 벌이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8/11>